

ploidy by karyotype analysis and evidence of genetic, endocrine, infections, immunologic or anatomic factors were excluded and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pregnancy outcomes and compare the results between study and control groups. Successful pregnancy outcome was defined as pregnancy ongoing beyond 25 gestational weeks.

Results: Age, number of previous abortion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Also, seventeen women who received IVIg therapy (17/20, 85.0%) but, five women who had not received (5/7, 71.4%), had a successful pregnancy outcome and the success rat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Based on our study, low-dose IVIg therapy have no advantage in treatment of RSA patients with unknown etiology, but more lager scaled prospective study is needed for available of conclusive evidence.

P-56 과배란 유도 후 발생한 병합임신을 예측하는데 β-hCG 값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차선화 · 양광문 · 김해숙 · 김혜옥 · 송인옥 · 강인수 · 궁미경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Background & Objectives: 병합임신시 모성 사망률은 정상적 임신보다 70배 이상의 위험성을 갖으며 모체 및 자궁내 태아 유병률의 빈도가 높아 조기 진단이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과배란 유도 후 발생한 병합임신을 예측하는데 난자 채취 후 12일째와 14일째 측정된 혈중 인간 융모성 성선자극 호르몬 베타 소단위 (β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β -hCG)의 효용성과 가능한 임계치를 알아보는데 있다.

Method: 1994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지난 10년간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불임클리닉을 방문하여 과배란 유도 후 발생한 병합임신 15예를 대상군 (group A)으로 설정하였다. 대조군의 설정은 같은 기간 내 과배란 유도 후 임신된 환자 중 연령 및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에서 확인된 임신낭의 수를 고려하여 정상 단일 자궁내 임신 (group B) 83예와 다태아 임신 (group C) 31예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의 진료 기록을 통해 난자 채취 후 12일째와 14일째 측정된 β -hCG치를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결과의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p < 0.05$ 를 기준으로 삼았다.

Results: 대상 기간내 총 18,244회의 과배란 주기 중 15예의 병합임신이 발생하여 8/10,000의 빈도를 보였다. 대상군과 대조군 간의 연령, 난관 인자 여부, 이식한 배아수, 보조부화술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난자 채취 후 12일째 측정된 β -hCG치의 평균은 각각 group A는 54.9 ± 8.6 , group B는 48.1 ± 3.4 , group C는 126.5 ± 10.3 mIU/mL (mean \pm SE)로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난자 채취 후 14일째 측정된 β -hCG치의 평균은 각각 group A는 214.9 ± 33.9 , group B는 146.1 ± 10.6 , group C는 406.4 ± 38.7 mIU/mL (mean \pm SE)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ROC 곡선에서 80%의 특이성을 가지며 정상 단일 자궁내 임신에 비해 병합임신을 예측할 수 있는 난자 채취 후 14일째 혈중 β -hCG의 임계치는 211 mIU/mL 이상이었다.

Conclusions: 과배란 유도 주기 후 발생한 병합임신을 예측하는데 난자 채취 후 14일째에 측정된 혈중 β -hCG 값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